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여 '결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직무대행 박정배)은 지난 8일 '제4회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박람회'에서 2022년 사회적경제 유공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11일 밝혔다.

사회적경제 유공 대통령 표창은 사회적경제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성공모델 구축·확산을 위해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를 선정해 포상하는 제도다.

공단은 △사회적경제기업 공모사업 △번개출장세차 자활사업단 △금요장터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과 확산에 기여한 공을 높이 평가받았다.

'사회적경제기업 공모사업'을 통해 성장잠재력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을 발굴하고 맞춤형으로 사업비를 지원해 신규고용 창출(4개 기업, 20명과 약 3억 원의 매출 증대(지원 전 대비 55% 향상))의 성과를 이뤄냈다.

또한, 공단 시설개방 및 출장세차 차량비용 지원을 통한 번개출장세차 자활사업단과 카페의 일회용품을 수거해 재활용하는 'PET' 자원순환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8일 '제4회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박람회'에서 2022년 사회적경제 유공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11일 밝혔다.

국민연금, 사회적경제 박람회서 유공 대통령 표창 기업 공모·번개출장세차 자활사업단 등 펼쳐

자활사업단'을 설립·기획해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이 외에도 공단 사옥 로비를 판매

장터로 제공한 '금요장터' 개설로 주민과 소상공인, 자활기업 등을 연결해 지역물품 우선구매와 판로다각

화를 통한 사회적경제기업의 매출확대에 기여했다.

박정배 이사장 직무대행은 "앞으로도 공단은 내실 있고 체계적인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사업을 통해 상생과 협력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윤상기자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사업 제안, 발전에 기여

경진원 자치경제팀장, 사회적경제 활성화 유공 국무총리 표창

전북도경제통상진흥원(원장 이현웅, 이하 경진원)은 지난 8일 기획재정부가 주관한 '2022년 사회적경제 활성화 유공자 정부포상 수여식'에서 자치경제팀 최인남팀장이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수여식은 정부가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단체나 개인을 발굴하고 포상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미술가, 소셜벤처 기업,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등에 종사하는 임직원 및 기관을 대상으로 향상이 이뤄졌다.

경진원 자치경제팀 최인남 팀장은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의 설립 및 운영 등에 참여하여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다양한 사회적경제분야의 지원사업을 통해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한 공을 인정받아 '사회적경



제 중간지원조직(임직원) 분야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특히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연구(사회적기업의 조세정책 방향)와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사업 제안과 운영을 통해 사회적경제 발전에 기여한 부분을 인정 받았다.

경진원 최인남 팀장은 "사회적경제 기업의 안정적인 시장진입과 관심을 토대로 펼쳐 온 지원들이 이번 표창으로 뜻 깊은 결실을 맺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시장경제에서 발생하는 실업문제, 취약계층 소외 등 사회문제를 함께하는 사회적경제'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진원은 '사회적경제 선도기관'으로 그동안 전북형 사회적경제의 기반을 다이어온 만큼 이를 더욱 공고히 해 지속성장 가능한 사회적경제기업을 발굴·육성에 더욱 집중, 이를 통해 지역 내 선순환 경제를 인식나킬 계획이다.

건협, 올기생충분야 학술연구지원과제 공모

한국건강관리협회(회장 김인원, 이하 건협)는 학술연구 분야의 활성화와 보건의료 전문 분야에 대한 연구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2022년도 한국건강관리협회 기생충 분야 학술연구지원과제 공모'를 실시한다.

공모 과제는 총 2편(지정주제 1편, 자유주제 1편)이고, 접수기간은 11월 ~29일까지다. 지정주제(1편)는 '반려동물 보호자 맞춤형 겹진 서비스 개발을 위한 인수공통기생충 감염실태 조사'이며, 자유주제(1편)는 협회 기생충 관리 및 학술연구 분야에 활용 가능한 연구내용이면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다.

제출자료는 양식에 따라 연구 제안서 및 계획서 각 1부를 이메일로 접수해야 한다. 자격요건은 국·공립 연구 기관·민법 또는 기타 법률에 의해 설립된 법인의 연구기관·고등교육법에 규정한 대학교·연구기관 및 기타 보건·의학분야 연구 관련 기관으로 연구책임자는 소속기관의 '정규 연구 인력'이면 참여 가능하다.

접수된 연구과제는 건협 '메디체크 연구위원회'에서 심의·선정한 후, 공용기생충윤리위원회(RB) 심의를 통해 확정된다. 연구비는 편당 3,000만 원 내외로 지원된다.

자세한 사항은 건협 홈페이지(www.kah.or.kr)에 공지되어 있다. 관련문의는 건협 메디체크연구소(02-2600-0186)로 하면 된다.

/김윤상기자

산업용 이차전지 소재 중장비 부품 생산시설 건립

새만금청, 동명기업·도원 산업기계와 투자계약

단계 생산체계를 구축해 국내 공급은 물론 해외 수출에도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두 기업은 빠르게 구축되고 있는 새만금의 물류 기반시설(인프라)이 기존 공장과 거래처와의 접근성을 높이고, 항만을 통해 수출 길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동명기업의 김재훈 대표는 "친환경·공정으로 이차전지 소재를 생산해 국내 회소금속 공급망 안정화에 힘을 보태고 그 과정에서 지역의 기업·기관·인재 등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유)도원산업기계 정일 대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을 최우선 목표로 국가와 지역, 기업 모두가 상생하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김규현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규현)은 9월 새만금 신단 14.9천㎡ 용지에 50억 원을 투자해 공장을 착공하고 직원 30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새만금공장에서는 산업용 이차전지 생산과 더불어 '사용 후 이차전지'에서 양극재 원료를 추출해 전지 제조에 공급함으로써 이차전지 재활용을 통한 에너지 광물 지원 확보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유)도원산업기계는 2016년 설립된 굴착기용 버킷과 어태치먼트(부착물)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기업이며, 올해 9월 새만금 신단 14.9천㎡ 용지에 50억 원을 투자해 공장을 착공하고 직원 30명을 채용한다.

신설된 공장에서는 신제품으로 개발한 오일윤활방식 회전링크의 전(全)

새만금청, 정보 보안 개인정보 보호 교육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규현)은 11일 직원들의 사이버 위협에 대한 경각심과 실질적인 대응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정보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정보 보안 전문기를 초청해 최근 동향을 살펴보고, 사이버 침해 사고 및 대응 방안, 개인정보 유·노출 사고로 인한 피해 사례와 대응 절차 등 업무 현장의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새만금청은 교육 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직원들을 독려하는 한편, 랜섬웨어 감염 예방법 등 캠페인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경수 기자

농업과학도서관 '새단장'

코로나19 이후 2년만...지역주민 등 방문 오늘부터 재허용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로 중단됐던 농업과학도서관의 외부이용객(지역주민 등) 방문이 12일부터 다시 허용된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농업과학도서관의 내부 시설 일부를 책과 쉼터 함께 하는 공간으로 새 단장하고 재개관한다고 11일 밝혔다.

농업과학도서관은 '사람과 정보 문화'라는 핵심 가치를 반영해 칸막이 책상이 있던 열람실을 폐쇄하고 허리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세미나 또는 소규모공연이 가능한 공간, 회의와 독서 활동, 휴식이 가능한 다목적 열린 공간으로 탈바꿈시켰다.

특히 최근 새롭게 주목받는 책 추천 서비스(특정한 주제에 맞는 여러 책을 선별해 독자에게 제안)를 도입해 책 전시와 대출 서비스도 시작한다. 농업과학도서관에서 직접 선정한 '기후변

화, 식량안보, 채식, 반려동물' 등 다양한 주제에 맞는 책을 제작함으로써 이용자에게 다양한 분야의 책을 접할 기회를 제공한다.

농업과학도서관 방문이 가능한 시간은 월~금요일이며, 소장자료 대출은 도서관 운영시간과 상관없이 누리집(lhda.go.kr)에서 무료 우편 대출 또는 책마켓(무인도서 대출함) 서비스를 이용해 신청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 지식정보화담당관은 이 병연 과장은 "새롭게 문을 연 농업과학도서관이 직원들에게 친의적인 연구와 업무를 지원하는 신개념의 사무실이 되고, 지역주민들에게는 독서와 휴식, 지식정보 활용이 동시에 가능한 공간으로 탈바꿈시켰다.

특히 최근 새롭게 주목받는 책 추천

/김윤상기자

New삼천만인NH재해보험 전북 1호 가입

정재호 전북농협 본부장

NH농협생명 전북총국(총국장 이숙)은 11일 정재호 전북농협 본부장이 전주농협에서 이번에 출시된 농협생명 신상품 New삼천만인NH 재해보험'에 전북지역 1호로 가입했다고 밝혔다.

New삼천만인재해보험의 '삼천만'은 2021년말 우리나라 운전면허 소지자 수가 약 3,300만명인데에 착안했으며 자동차 사고는 물론 운전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시대 상황을 고려해 운전자 보장 강화를 위해 출시된 상품이다.

보험기간 중 자동차 사고로 상해 발생 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1급부터 14등급까지 '자동차부상치료급여금'을 지급하며 특정정액암병에 대해서도 진단 1회당 30만원, 암외활동 4대 법정감염병인 △쯔쯔기·무시증 △렙토스피리증 △종종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신증후군출혈증 등 진단 1회당 100만 원까지 지급한다.

이날 정재호 본부장은 "손해보험 민의 영역이라고 생각했던 자동차 사고로 인한 부상을 농협생명이 보장하는 민족 고객과 조합원에게 제공하는 담보범위가 더욱 확대된 듯하다"고 말했다.

이숙 총국장은 "전북농협을 찾아주시는 많은 조합원과 고객에게 생명보험의 새로운 보장내용으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전북에 있는 여러 농축협에서 많은 조합원들이 본 신상품의 기법을 통해 더 든든한 보장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2022 신협 어부바 원어민 영어교실 추진

신협시민공연재단(이사장 김윤식, 이하 재단)은 지역 내 소외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양질의 영어교육을 무상 제공하는 2022년 '신협 어부바 원어민 영어교실' 사업을 추진하고, 지난 8일 대전 신협중앙연수원에서 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올해는 코로나19 기간 중 심화된 교육격차 해소에 일조하고자, 전년 대비 참여 신협 수를 확대해 전국 30개 신협을 선정했다. 사업 시행 기간은 올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이며, 총 373명의 아동에게 원어민 영어교실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재단은 영어교실 운영을 통해, 지역 사회 내 교육여건이 어려운 아동들의 학력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윤식 재단 이사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소외계층 아동들이 영어에 대한 흥미를 높여 미래를 밝힐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것을 기대한다"며 "심화되는 사회 양극화 속에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다양한 교육사업을 계속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정보 보안 전문기를 초청해 최근 동향을 살펴보고, 사이버 침해 사고 및 대응 방안, 개인정보 유·노출 사고로 인한 피해 사례와 대응 절차 등 업무 현장의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새만금청은 교육 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직원들을 독려하는 한편, 랜섬웨어 감염 예방법 등 캠페인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정읍산림조합, 조합원 선진지 견학 성료

정읍신림조합은 지난 9일 조합원 및 임직원 7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2년 선진지 견학회를 실시했다.

이날 선진지 견학의 목적은 임·직원과 조합원간의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최근 임업동향 및 발전방향과 신림 관련 6·7산업 운영방법을 서로 모색하고 특히 본재산 활용방법을 위한 체험의 시간을 갖고자 선진지 견학을 계획했다.

이번 선진지 견학에 참여한 조합원들은 "조합장과 직원들의 단합된 마음으로 행사가 잘 마무리 되었으며, 조합원들의 재산을 잘 관리해 다양한 환원사업을 통한 조합원 개개인의 이익은 물론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차원에서도 신뢰성이 잘 기울어져야하고 그 중심에 정읍신림조합이 있다며, 더 많은 신림정책 개발에 박차를 가해 달라"고 입을 모았다.

/정읍=김대환 기자